

2023년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Contents

I. 경제 및 산업환경	3
1. 세계경제	4
[이슈] 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脫세계화 향방은?	10
[이슈] ② 과거와는 다른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상	11
2. 국내경제	12
[이슈] ① 물가 상승 지속되나?	20
[이슈] ② 3高 현상의 경제 주체별 거시경제 영향	21
[이슈] ③ 부동산發 가계부채 우려 확대	22
3. 산업환경	23
II. 중소기업	27
[부록] 2022년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34



I. 경제 및 산업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산업환경

1. 세계경제

1. 세계경제 [총괄]

(현황)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러-우 전쟁, 중국 봉쇄 정책 등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요국들이 일시에 통화긴축 속도를 높이며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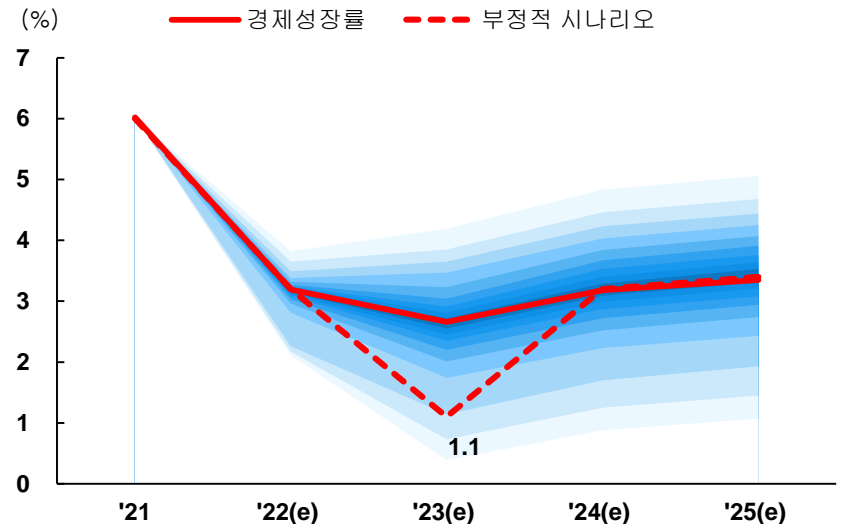
(전망) 통화긴축 영향 가시화, 재정지출 제한,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 확대

- (물가) 경기 둔화, 유가 안정 등으로 '22년(8.8%)보다는 완화되겠으나 '23년에도 6.5%의 높은 수준을 지속
- (소비) 高물가, 高금리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취약계층은 생계비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
- (정책 리스크) 균형감 있는 통화*·재정** 정책이 중요한 시점으로 정책실패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높은 상황
 - * 과잉 통화긴축은 경기 침체를, 과소 통화긴축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잉·과소 정책대응 모두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
 - **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재정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감 있는 재정정책에 실패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
- (우려요인)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신흥국 부채 등으로 부정적 시나리오 현재화될 가능성

세계 경제성장률

(%)	'20년	'21년	'22년 ^e	'23년 ^e
세 계	△3.0	6.0	3.2	2.7
선진국	△4.4	5.2	2.4	1.1
미 국	△3.4	5.7	1.6	1.0
유로존	△6.1	5.2	3.1	0.5
일 본	△4.6	1.7	1.7	1.6
신흥국	△1.9	6.6	3.7	3.7
중 국	2.2	8.1	3.2	4.4
ASEAN-5	△3.4	3.4	5.3	4.9

세계 경제성장률과 부정적 시나리오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2.10월)

주 : 파란색 영역은 5~95% 신뢰구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2.10월)

1. 세계경제 [주요국] : ① 미국

(현황)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며 통화 긴축 가속화로 경기 회복세 둔화

- 고용 호조*로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 신규고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
 ※ 취업자수(천만명) : 15.2('20.2, 팬데믹 직전) ⇒ 14.3('21.1) ⇒ 14.9('22.1) ⇒ 15.3(9), ※ 실업률(%) : 3.5('20.2) ⇒ 6.4('21.1) ⇒ 4.0('22.1) ⇒ 3.5(9)
- 러-우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며 생산이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활동도 회복세 주춤
 ※ 산업생산(전동비, %) : 13.9('21.Q2) → 4.6(Q3) → 4.4(Q4) → 5.0('22.Q1) → 4.3(Q2), ※ 개인소비(전동비, %) : 21.4('21.Q2) → 12.3(Q3) → 12.9(Q4) → 11.1('22.Q1) → 9.4(Q2)

(전망) 고금리 환경 지속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경기 둔화폭 확대

- '23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상당기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설비투자전망(전기대비, %) : △2.0('22.Q4) → △3.9('23.Q1) → △1.3(Q2) → 2.5(Q3) → 3.8(Q4)
 ※ 개인소비전망(전기대비, %) : △0.8('22.Q4) → △1.0('23.Q1) → △0.6(Q2) → 1.0(Q3) → 1.5(Q4)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주 : 전동비, 전망치는 53개 글로벌 금융기관 9월 기준 중간값
 자료 : BEA, Bloomberg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1년	'22년 ^e	'23년 ^e
정부지출(전년대비, %)	0.6	△0.9	2.9
개인소비지출(전년대비, %)	8.3	2.4	△0.1
가계자산(조달러)	150	159	162
CPI(전년대비, %)	4.7	8.3	4.3
수출(전년대비, %)	6.1	6.3	0.8
수입(전년대비, %)	14.1	8.7	△1.1
재고(십억달러, '12년대비 증감)	△19	86	△1.0
실업률(%)	5.4	3.8	4.4
경제활동참가율(%)	61.7	62.3	62.1
신규고용(월평균, 천명)	330	498	152

주 : '21년은 실제치, '22년 및 '23년은 아래 기관의 예측치
 자료 : Fed, Conference Board, Deloitte, S&P

1. 세계경제 [주요국] : ②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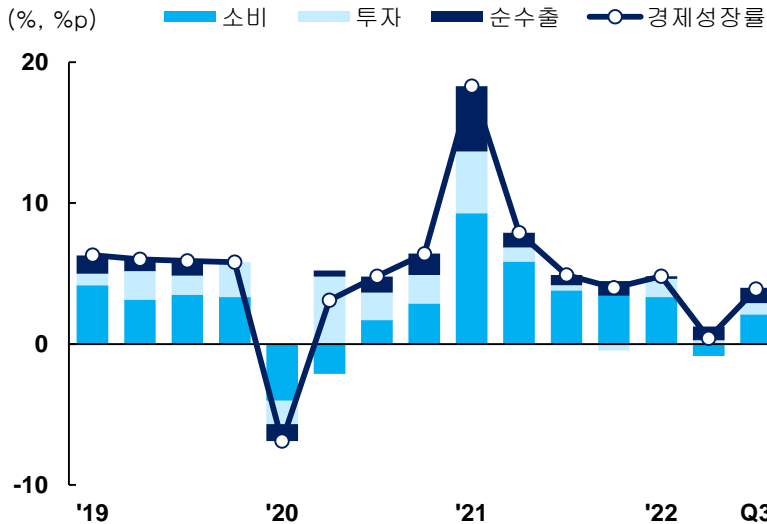
(현황) 정부의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시 봉쇄, 부동산 시장 악화로 경제 회복세 부진

- * 대출우대금리(LPR), 중기대출금리(MLF) 등 인하, 인프라(교통, 물류, 통신, 발전 등) 투자,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세금 면제 등
- (소비) 지역간 이동제한·외출규제 등으로 대면 서비스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심리 불안도 지속
- (생산) 내수회복 지연과 글로벌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수출 부진) 등으로 증가 속도 둔화
- (부동산) 주택 판매부진('22.1~8월 전동비 Δ 23.0%)과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공사 중단 등 부동산 시장 악화

(전망) 반시장 정책 우려, 기업 부실 부채 등 불확실성 확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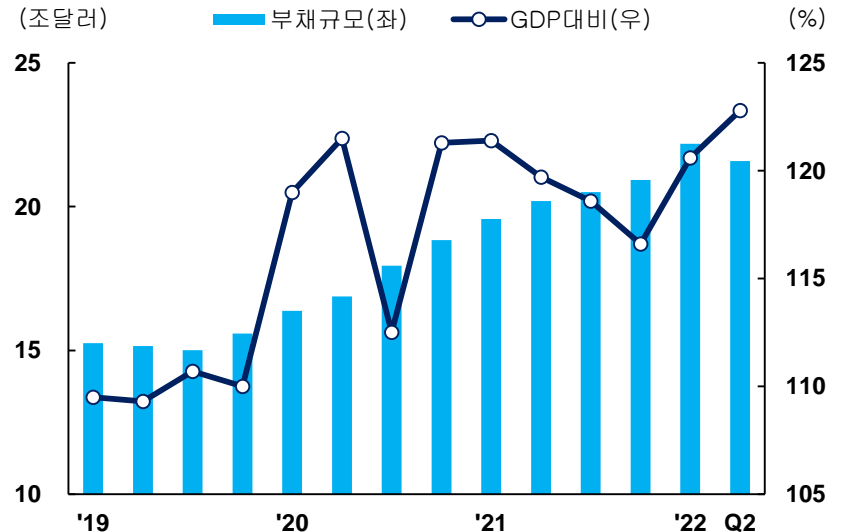
- 시진핑 총서기 3연임으로 친시장주의자가 지도부에서 배제*되며 미-중 분쟁 심화,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 * 리커창 등 개혁개방을 이끌어온 공청단 계파가 사라지고, 제로코로나 정책을 추진했던 리창이 총리로 발탁되며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 확대
- 최근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등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며 연쇄 디폴트 가능성 확대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주 : 전동비, 자료 : 국가통계국

기업 부채 규모



주 : 비율은 명목GDP대비 부채, 자료 : 인민은행, 국가통계국

1. 세계경제 [주요국] : ③ 유로존·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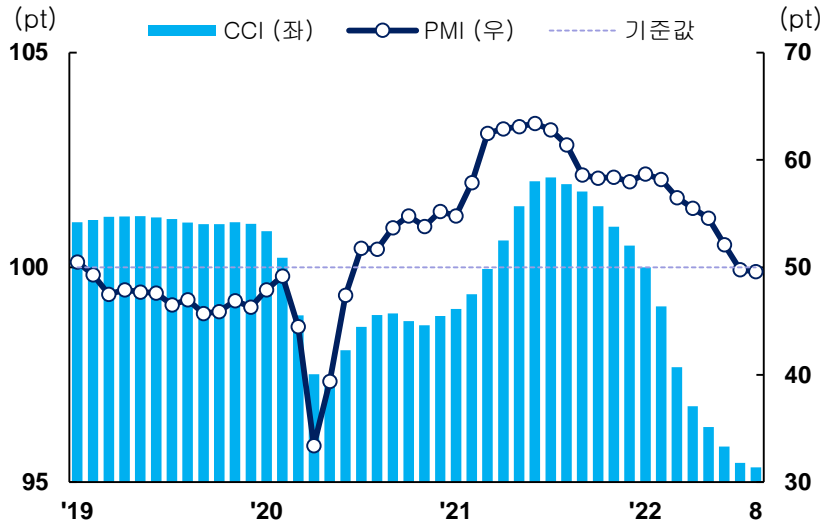
[유로존] (현황)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경기 부진, (전망) 생산·소비가 부진하며 경기 침체 본격화

- 천연가스 부족에 따른 관련 업종(전기·화학·철강 등 가스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 차질 전망
 - ※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산업별 생산차질 추정(GDP대비, %, IMF추정) : 전기(4.0~8.5), 화학(2.0~4.6), 철강(0.8~2.7)
- 인플레이션 영향 장기화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통화긴축이 본격화되며 민간소비가 둔화될 전망
 - ※ 인플레이션(전동비, %) : 3.4('21.9) ⇒ 5.0('22.12) ⇒ 7.4('23.2) ⇒ 8.1('23.5) → 8.6('23.6) → 8.9('23.7) → 9.1('23.8) → 10.0('23.9)

[일본] (현황) 설비투자과 소비의 확대로 경기 방어, (전망)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성장률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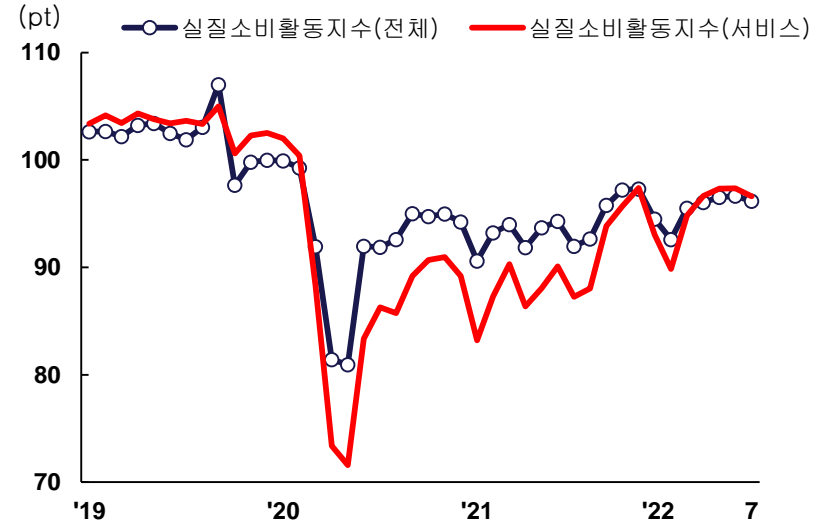
- ※ 설비투자(계절조정, 전기대비, %) : △2.0('21.Q3) → 0.2(Q4) → △0.1('22.Q1) → 2.0(Q2)
- 무비자 입국 및 개인 여행 허용 등 코로나19 완화정책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회복으로 민간소비는 회복세 지속
-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향후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어 성장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

유로존 CCI & PMI



자료 : OECD, IHS MARKIT

일본 실질소비활동지수



주 : 2015=100, 자료 : BOJ

1. 세계경제 [주요국] : ④ IBK 진출 신흥국

(현황)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

- (베트남) 제조업 정상화와 함께 소매 및 관광부문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
- (인도네시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순수출 증대로 인한 무역흑자가 호재로 작용하며 '22년 경제성장을 견인
- (인도) 중국 봉쇄 반사이익, 방역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 등으로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

(전망) 다른 신흥국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회복세는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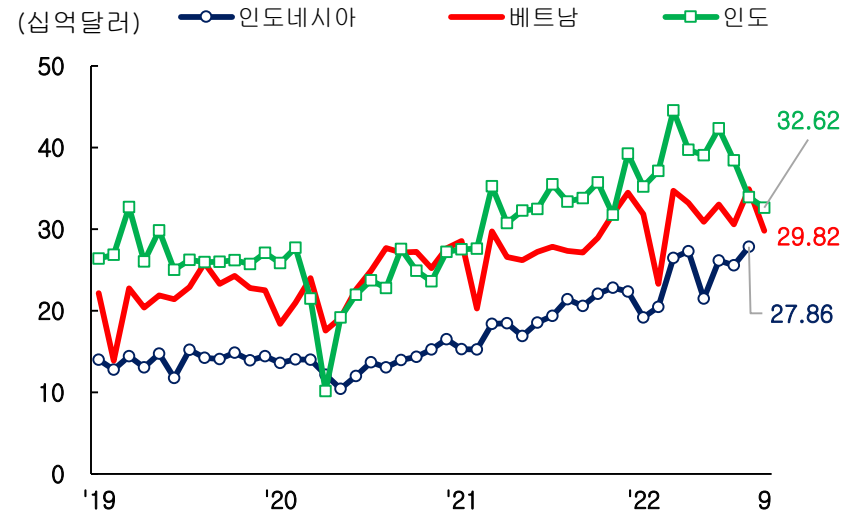
- (베트남) 주요국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수출 및 관광산업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 (인도네시아) 원자재 가격 정상화와 중국의 수출 부진 영향으로 에너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인도) '23.Q1까지 예정된 강력한 긴축,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위축 등이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지적

경제성장률

(%)	'20년	'21년	'22년 ^e	'23년 ^e
베트남	2.9	2.6	7.0	6.2
인도네시아	△2.1	3.7	5.3	5.0
인도	△6.6	8.7	6.8	6.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2.10월)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수출금액



자료 : CEIC

1. 세계경제 [이슈] : 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脫세계화 향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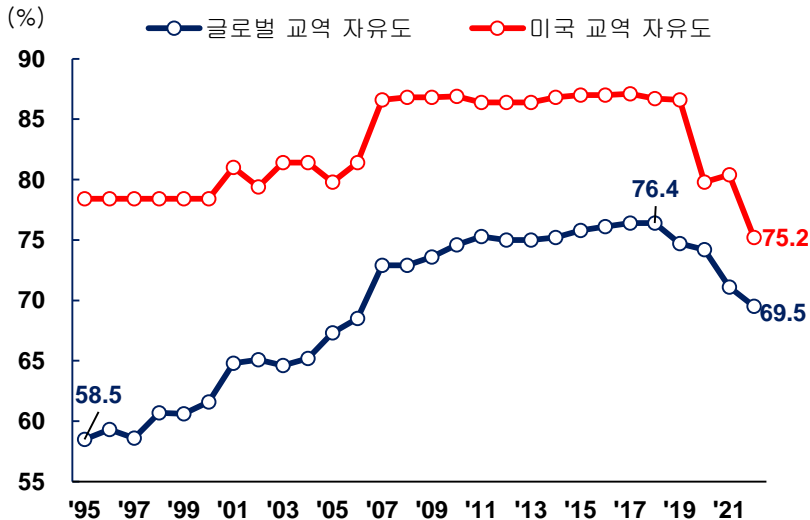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국가간 분쟁과 脫세계화 진전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됨

- 중국 견제 등을 이유로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며* 교역비용 증가 * 글로벌 교역 자유도는 '06년 이후 처음으로 70을 하회
- 코로나19와 러-우전쟁 이후 제조업의 국제 분업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며 제품 단가가 상승
- 과거 복잡한 경제 상호 의존성은 막대한 GVC 재배치 비용을 요구하고 투자 의사결정 지연과 공급 병목을 야기

향후 세계화는 경제적 협력과 자국 중심주의가 동시 발생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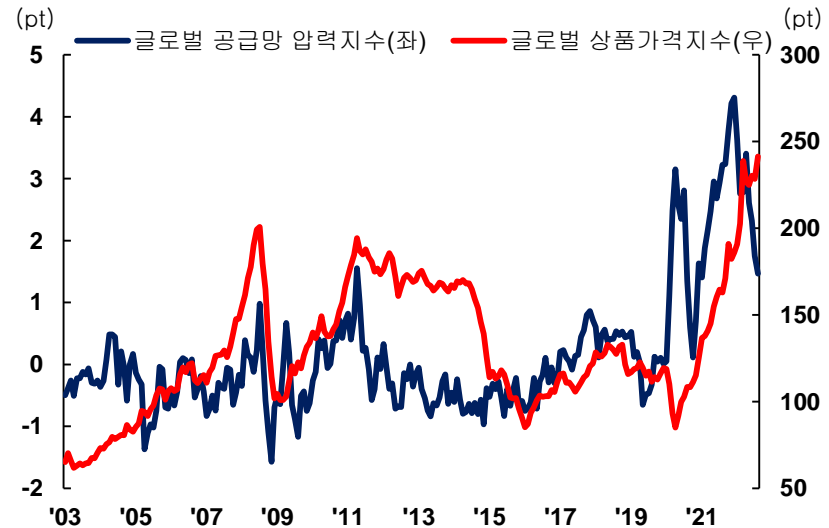
- 다보스 포럼은 5년 뒤에는 세계화 움직임이 4가지 시나리오*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 * ①Globalization 5.0(재연결), ②Analogue Networks(교역 개방/기술/디지털 교류 단절), ③Digital Dominance(디지털 교류 진전/교역 감소), ④Autarkic World(자급자족)
- 정책 입안자들이 더 고립된 방향을 선택할 경우 비용상승, 기술진보 후퇴 등 장기간 분쟁의 비용이 높아질 전망

글로벌 교역 자유도



주 :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과 수입물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지수화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글로벌 공급망 압력과 상품가격



자료 : FRED, NY Fed

1. 세계경제 [이슈] : ② 과거와 다른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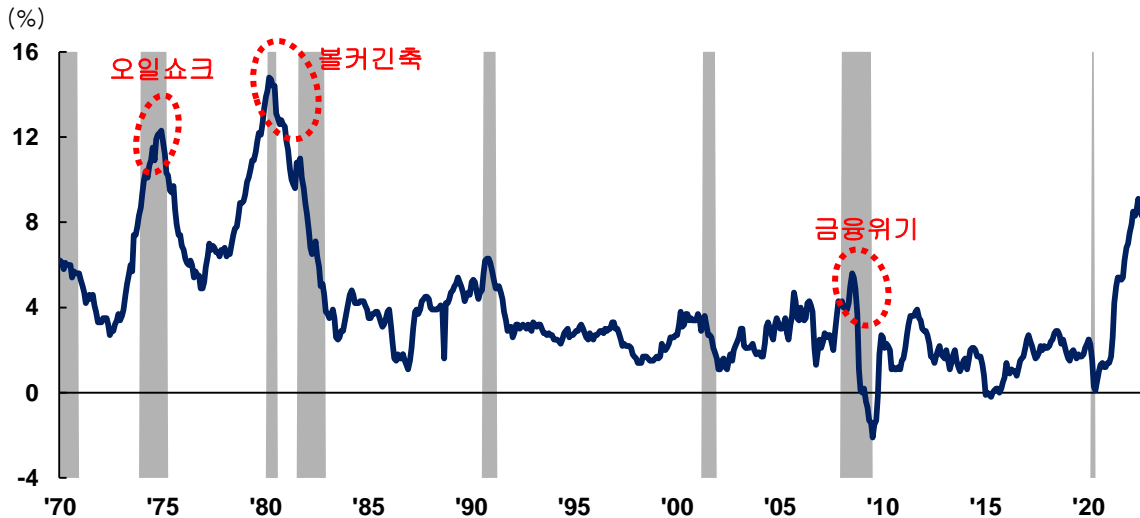
(과거) '80년대 볼커 긴축 이후 조성된 세계화 분위기는 골디락스(고성장+저물가)의 기반이 됨

- 볼커 긴축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야기했지만, 이후 미국 주도 하에 국제 분업화가 조성되며 세계경제는 호황 국면에 진입
- 중국 등 신흥국은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으로 낙수효과를 얻으며 급성장하였고, 선진국-신흥국의 공생 관계 형성

(미래) 인플레이션 정점 이후에도 협력 관계 약화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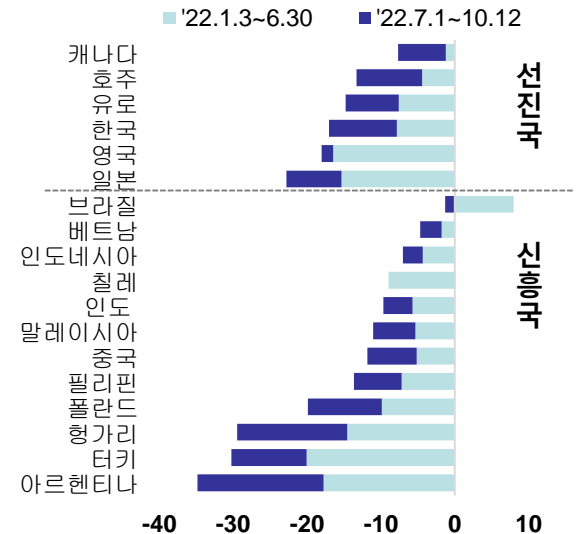
- (脫세계화) 생산 비용 증가로 향후 물가는 급속한 안정을 되찾기 어렵고, 신흥국은 낙수효과 단절로 성장에 어려움 예상
- (달러강세) 주변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통화긴축으로 대부분 국가의 통화가치가 동시에 급락하였고, 특히 신흥국은 달러표시 국채 상환 부담이 높아져 연쇄 디폴트 리스크 확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역사



주 : 음영은 NBER기준 경기침체 구간, 물가는 CPI기준, 자료 : FRED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



단위 : %, 자료 : BondWeb(런던 OTC기준)

2. 국내경제

2. 국내경제 [총괄]

(현황)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수출 둔화로 회복세 약화

- (소비) 소매판매는 주춤하지만, 방역규제 완화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면소비 중심으로 민간소비는 완전한 회복세
- (수출) 중국의 경기 둔화로 對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주력상품인 반도체 수출도 주춤하며 증가세 둔화
- (투자)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설비투자가 줄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투자도 부진 지속

(전망)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경기 부진 심화

- 주요국 경기 침체 본격화로 수출도 부진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정부지출도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울 전망
- 세계 공통 위험 외에도 북핵 실험 도발, 대만해협 긴장 고조 등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질 전망
- 외환위기(△5.1%), 금융위기(0.8%), 코로나19(△0.7%)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내외)을 하회할 전망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	'21년	'22년			'23년 ^e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4.1	3.0	2.3	2.6	1.3	2.1	1.7
민간소비	3.7	4.1	5.3	4.7	4.3	1.3	2.7
설비투자	9.0	△6.4	2.7	△2.0	0.7	△6.7	△3.1
건설투자	△1.6	△4.5	△0.4	△2.4	2.4	△2.4	△0.2
상품수출	10.5	6.0	0.9	3.4	△3.7	4.9	0.7
상품수입	12.8	5.3	6.4	5.8	2.0	△1.2	0.4
소비자물가	2.5	4.6	5.6	5.1	4.2	3.1	3.6

주 : 전동비, 자료 : 한국은행('22.11월)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22년 ^e	'23년 ^e	전망 시점
IMF	2.6	2.0	'22.10
OECD	2.7	1.8	'22.11
KDI	2.7	1.8	'22.11
KIF	2.6	1.7	'22.11
IB평균	2.6	1.8	'22.10

자료 : 각 발표기관

2. 국내경제 [소비/수출]

(소비) 高물가와 高금리로 소비 여력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소비 회복이 제약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전월대비, %) : 0.00('22.4) → △0.05(5) → △0.10(6) → △0.20(7) → △0.51(8) → △0.78(9)

- 금리상승 영향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이자수지(이자수입-이자비용) 적자가 악화되며 소비여력 축소
- 금리상승 부담과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소비심리는 더 위축될 전망

※ 연도별1~8월 누계 월세/(전세+월세) 거래량 비중(%) : 40.4('19) → 40.3('20) → 42.6('21) → 5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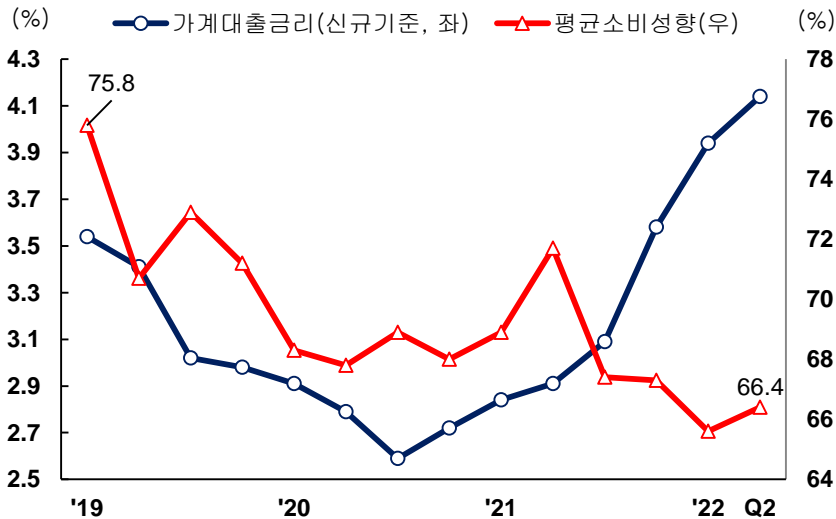
(수출) 세계경기의 회복세 둔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약화 및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 교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對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對중국수출(전동비, %) : 13.4('22.1) → 16.3(2) → 16.7(3) → △3.4(4) → 1.3(5) → △0.8(6) → △2.7(7) → △5.4(8) → △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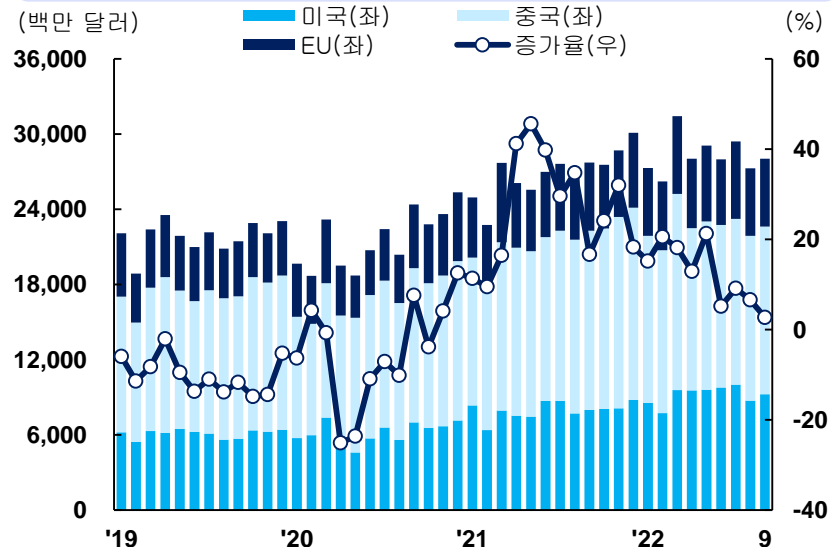
- 통화긴축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유로존까지 경기 침체가 확산되며 수출이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 증가

가계대출금리와 평균소비성향



주 :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요국 수출



주 : 전동비, 자료 : 관세청

2. 국내경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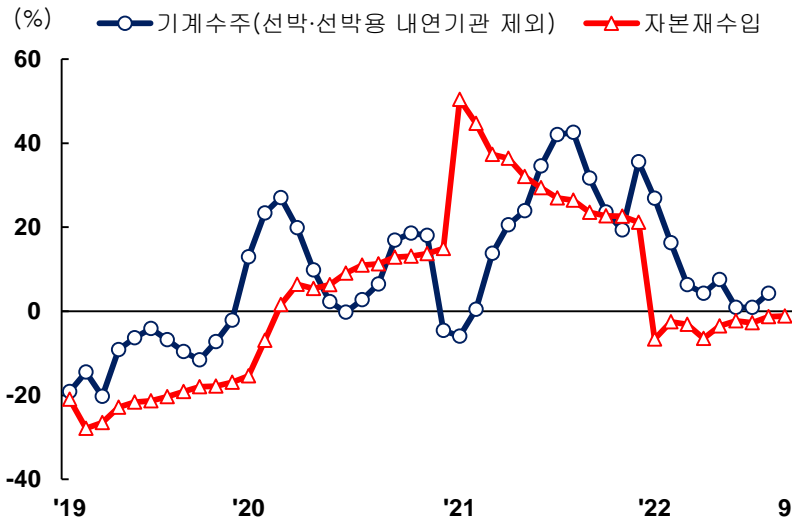
(설비투자) 글로벌 경기 침체, 자본조달비용 증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부진 지속

-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기피 심리가 확산되며 기계수주가 줄고 자본재 수입이 감소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 증가, 회사채 발행 감소,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등 차입여건 악화
- ※ 대출금리(신규취급, %) : 대기업 2.51('20.12) → 2.86('21.12) → 3.84('22.7), 중소기업 2.89('20.12) → 3.37('21.12) → 4.36('22.7)
 ※ 기업 대출태도(기준=0) : 대기업 0('22.Q1) → 3(Q2) → △6(Q3), 중소기업 0('22.Q1) → 6(Q2) → △6(Q3)

(건설투자) 원자재 가격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건설사의 자금 경색 등으로 부진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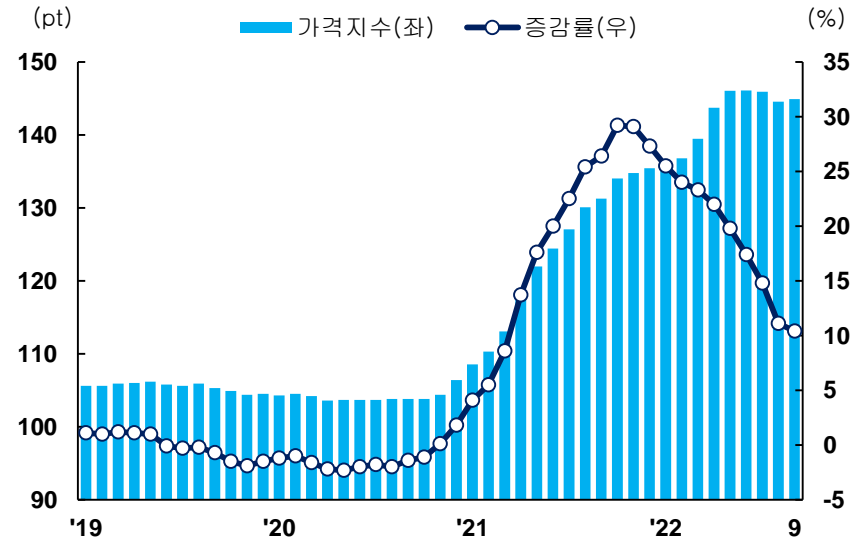
- 건설자재 수급여건 완화로 인한 가격 안정, 지연되었던 신규분양 재개,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은 긍정적 요인
-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
-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의 자금 경색으로 시공 중단 및 지연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

국내 기계수주 및 자본재 수입



주 : 전동비, 기계수주는 불변금액,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건설자재 가격



주 : 전동비, 건설용 중간재 가격, 기준 2015=100, 자료 : 한국은행

2. 국내경제 [정부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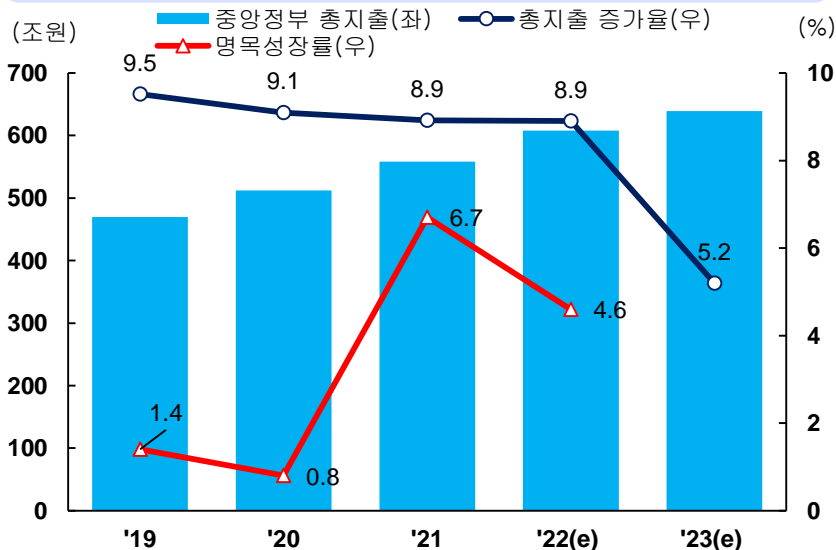
(정부지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둔 예산안 편성(총지출 639조원, 본예산대비 5.2%, 추경대비 △6.0%)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큰 폭으로 개선(△4.4% → △2.6%)하며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 이내)'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후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할 계획

- (국정과제)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한 110대 과제, '23~'27년 5년간 총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 확정
- (지원정책)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6조원), 장애인·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6.6조원) 등
- (미래투자)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3.7조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탄소중립 대응(8.9조원) 등

재정지출과 명목GDP 성장률



주 :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 '21년까지 명목GDP 성장률은 실적치이며, '22년 이후는 기획재정부의 예측치,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본예산) 지출부문

(조원, %)	'21년	'22년	'23년	
			금액	증가율
전체	558.0	607.7	639.0	5.2
보건·복지·고용	199.7	217.7	226.6	4.1
교육	71.2	84.2	96.1	14.2
문화·체육·관광	8.5	9.1	8.5	△6.5
환경	10.6	11.9	12.4	3.9
R&D	27.4	29.8	30.7	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31.3	25.7	△18.0
SOC	26.5	28.0	25.1	△10.2
일반·지방행정	84.7	98.1	111.7	13.9
기타	103.5	106.6	110.6	16.7

주 : 기타는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자료 : 기획재정부

2. 국내경제 [금융시장] : ①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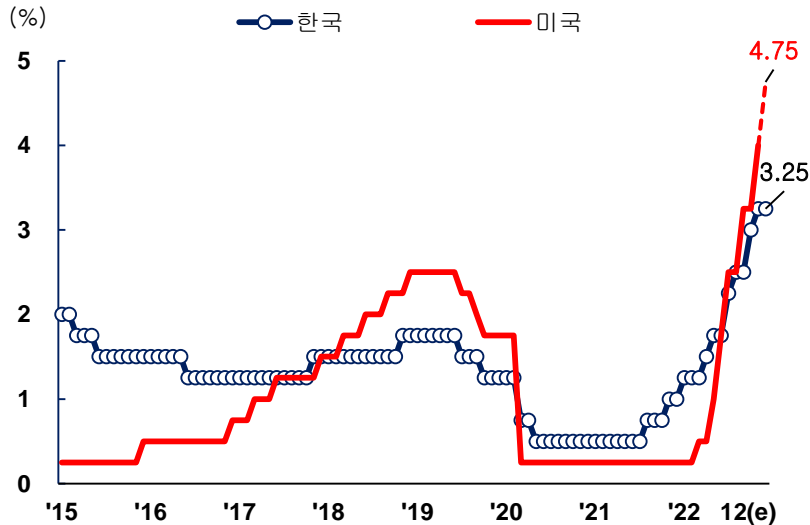
(현황) 물가 및 금융안정, 주변국 통화긴축 속도 등 고려하여 유례없이 빠른 긴축 행보

- (미국) 물가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물가 상승 범위가 확산되고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지속되자 통화긴축 가속화*
* 연준이 9월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연말 4.50~4.75%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두 차례 회의에서 1.5%p 인상)한다는 전망이 우세
- (한국) 물가 안정 및 대내외 금리차 등을 고려하여 긴축 속도를 높이며 연초 1%의 금리를 3.25%까지 인상

(전망) 경기상황 때문에 금리인상은 제한적이나, 물가·환율 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 유지

- 가계·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 최근 부동산 PF發 자금 경색 우려 등으로 인상폭은 제한적
- 물가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23년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지속 ※ 물가전망(%) : 한국은행 3.6, IMF 3.8
-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외환부문 변동성을 고려하여 주요국 긴축 속도에 맞추어 통화정책 운영

기준금리



주 : 미국은 Federal funds rate 상단 기준, 점선은 기준금리 전망(CME Market Watch,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 Fed

주요 IB의 기준금리 전망

(%)	'22년	'23년 ^e	
		6월	12월
Goldman Sachs	3.25	3.50	3.50
HSBC	3.25	3.25	3.25
Standard Chartered	3.25	3.75	3.75
ING Group	3.25	3.50	3.00
Meritz	3.25	3.50	3.25
Barclays	3.25	3.50	3.25
JP Morgan	3.25	3.75	3.75
중앙값	3.25	3.50	3.25

주 : 전망 시점은 '22.11월 기준, 자료 : Bloomberg

2. 국내경제 [금융시장] : ②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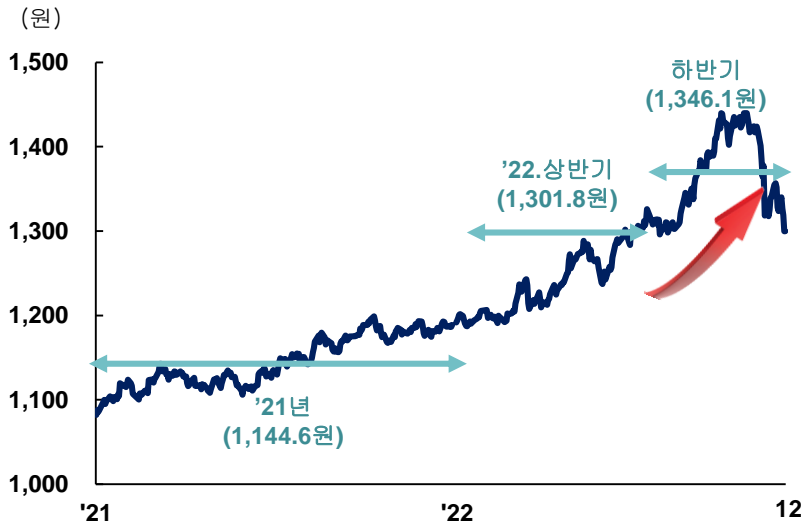
(현황) 달러 강세와 경기 부진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11월 들어 다소 안정세

-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 강세 가속화
- 쌍둥이 적자로 경기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한미금리 역전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자본 유출 지속
 ※ 외국인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조원) : 9.9('21.Q1) → 8.3(Q2) → 7.1(Q3) → 14.4(Q4) → △1.2('22.Q1) → △10.3(Q2) → △1.0(Q3)
- 다만, 중국의 정치 불안 해소(시진핑 3연임)와 제로코로나 규제 완화로 對중국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며 하락 전환

(전망) 통화긴축 속도가 늦춰지며 원/달러 환율 안정세는 유지되겠지만, 높은 수준 예상

- 주요국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 중심으로 둔화되며 긴축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 또한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며 무역수지 적자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단, 러-우 전쟁 확산, 북한 등 국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높아진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원/달러 환율



주 : 증가 기준, ()는 각 기간별 원/달러 환율 평균
 자료 : 한국은행

주요 IB의 원/달러 환율 전망

(원/달러)	'22년 ^e	'23년 ^e	
		6월	12월
JPMorgan Chase	1,440	1,340	1,400
Barclays	1,450	1,500	1,350
Nomura	1,370	1,360	1,300
ING Financial Markets	1,350	1,350	1,200
Wells Fargo	1,350	1,350	1,330
Morgan Stanley	1,370	1,320	1,280
Citigroup	1,399	1,324	1,273
BNP Paribas	1,385	1,400	1,250
평균	1,389	1,368	1,298

주 : 전망 시점은 '22.11월 기준, 기말 기준, 자료 : Bloomberg

[참고] 금융위기 당시와 3高 수준 비교

물가, 금리, 환율 수준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

- (물가) 최근 고점은 6.3%('22.7월)로 금융위기 고점(5.9%, '08.7월)을 이미 초과
 - ※ (비고) 과거에는 통화긴축 이후 물가가 안정되었으나, 최근 脫세계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지 여부가 관건
- (금리) '22.11월 현재 3.25%로 금융위기(5.25%, '08.9월)때 보다 낮은 수준이나, 내년까지 인상기조 유지 전망
 - ※ (비고) 금리수준은 고점대비 낮은 편이나, 가계/기업 대출잔액은 금융위기 고점의 57% 수준이며 원리금 상환 부담은 2.6배로 매우 높은 수준
- (환율) 최근 고점은 1,439.9원('22.9.29일)으로 금융위기(1,570.3원, '09.3.2일) 수준에 근접
 - ※ (비고)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이나, 최근 주요국 통화가치 동반하락(p11. 세계경제 이슈②)으로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는 낮음

3高 현상 지속은 경제·금융시장을 위축시켜 복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통화·재정 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으나, 코로나19 때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지금은 통화·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

2000년대 이후 물가·금리·환율 변화



주 : 환율은 월평균,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 국내경제 [이슈] : ① 물가 상승 지속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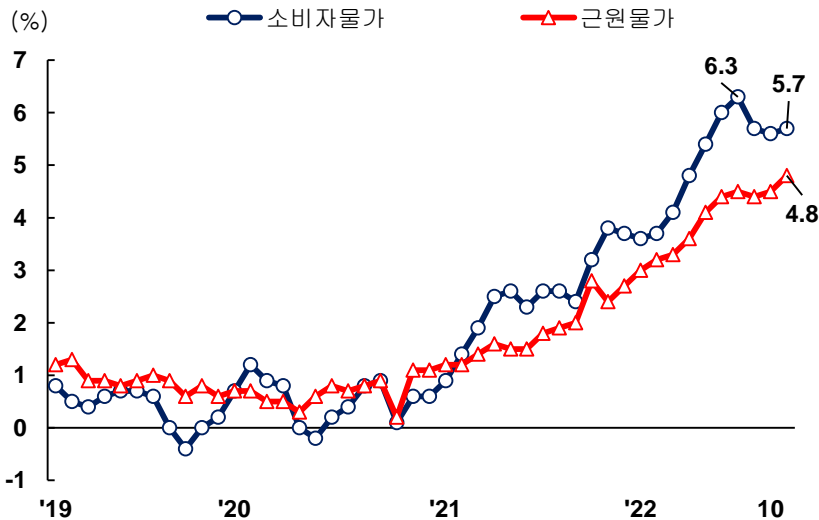
(현황)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품목이 확산되며 기초적 물가는 상승세 지속

- 근원물가 中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도는 품목 비중은 '21년초 20.1%에 불과했으나, '22.9월 현재 63.4%를 차지
- 에너지 등 공급측 요인 뿐 아니라, 개인서비스 등 수요측 압력*도 함께 커지며 물가가 꾸준한 오름폭 지속
- * '22.9월 현재 근원물가 中 물가상승률이 7%이 넘는 품목은 가공식품, 외식,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중심으로 수요측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전망) 공급·수요측 물가 압력은 모두 약해지겠지만, 근원물가의 지속성 때문에 高물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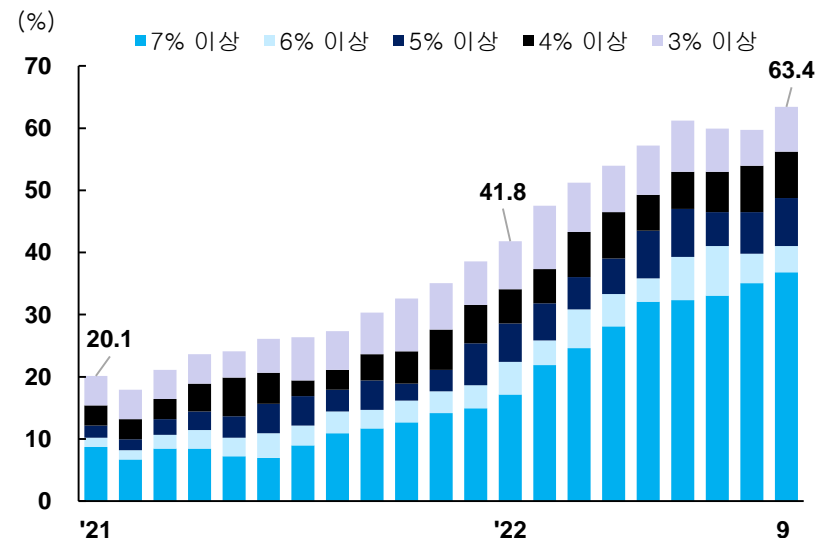
- (공급측)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이란 핵협상 진전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며 향후 공급측 물가 압력 완화 예상
- (수요측) 국내외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고금리 환경에서 소비 여력이 축소되며 물가 압력 완화 예상
- 단, 근원물가는 비근원물가에 비해 지속성이 높고, 고물가 국면의 지속성도 높아* 당분간 높은 물가수준 유지 전망
- * 한국은행 '고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점검('22.9월)'에 따르면 근원물가의 지속성 계수가 높고, 고물가 국면이 저물가 국면보다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주 :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전동비, 자료 : 통계청

근원물가 상승률 분포



주 :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402개 품목, 자료 : 통계청

2. 국내경제 [이슈] : ② 3高 현상의 경제주체별 거시경제 영향

(정부) 물가상승 압력과 고금리로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로 정부지출 제한

※ 국고채 이자비용(조원) : 16.9('17) → 16.9 ('18) → 16.3 ('19) → 16.8 ('20) → 17.7('21) → 20.7('22^e) → 24.8('23^e)

(기업) 高환율에 따른 수출 이익은 제한적이고 불확실성 확대와 이자부담 증가로 투자 부진

- (수출) 주요국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며 高환율에도 수출 경쟁력 개선은 제한적이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부진 지속
- (투자) 잠재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高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 예상

(가계)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DSR 임계치*를 초과하는 가계수가 늘어 소비에 악영향

*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 소비활동을 제약하는 DSR 수준으로 약 45.8% 추정('22.6월 한국은행 시산)



2. 국내경제 [이슈] : ③ 부동산발 가계부채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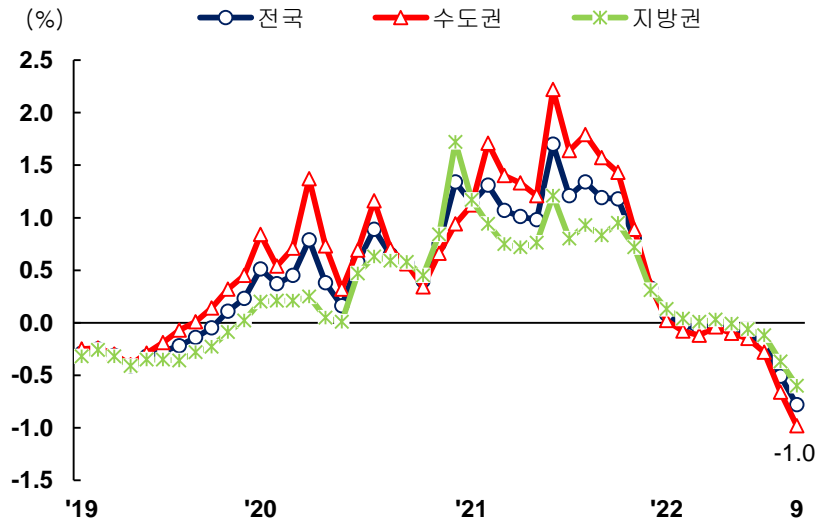
금리인상 가속화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 확대

-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점 기록
 ※ 주택구입부담지수(pt) : 49.7('20.Q1) → 63.6('21.Q1) → 68.3(Q2) → 73.5(Q3) → 83.5(Q4) → 84.6('22.Q1) → 84.9(Q2)
- 주택구입부담이 커지고 주택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주택거래가 냉각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하락
 ※ 아파트 매매 거래량(전동비, %) : △62.0('22.1) → △56.3(2) → △53.5(3) → △39.8(4) → △39.8(5) → △51.4(6) → △63.2(7) → △68.1(8)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가 매우 높아 부동산 침체가 가계부채 뇌관이 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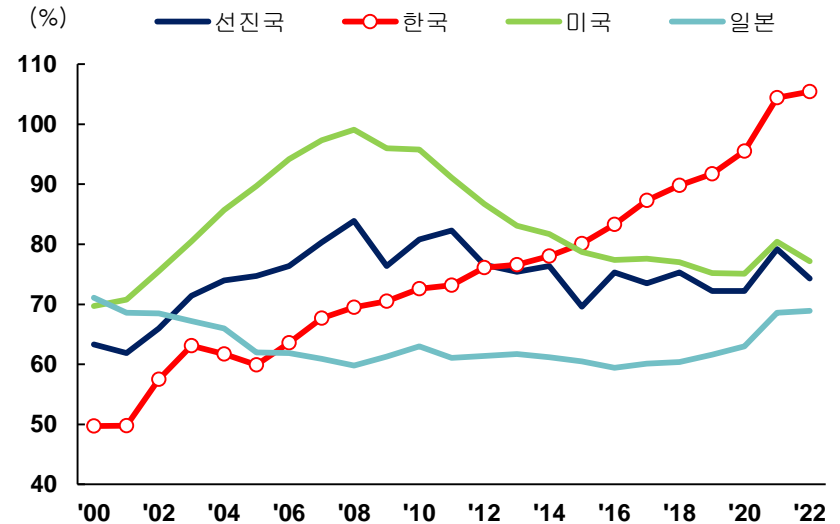
- 서브프라임 이후 디레버리징 추세였던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상환부담도 증가
 ※ 서브프라임 이후 주요국 DSR변화('07→'22.Q1, %) : 한국 11.3 → 13.1, 미국 11.5 → 7.5, 영국 13.0 → 8.5
-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부동산 침체에 따른 담보가치 훼손 및 유동성 위험이 신용경색을 야기할 우려 확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 전월대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자료 : BIS

3. 산업환경

3. 산업환경 [현황/전망]

(현황) 3高, 재고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둔화, 부동산을 제외한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유지

- (제조업) 반도체,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생산이 둔화 및 하락 다만, 조선 업종의 생산은 증가세 확대
- (서비스업)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은 감소한 반면, 방역대책 완화 등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은 증가세 유지
 ※ 세부 서비스업종 증가율(전동비, '22.8월, %) : 숙박·음식업(32.0), 정보통신업(6.2), 전문서비스업(5.2), 도소매(6.2), 부동산업(△6.0)

(전망) 3高 현상 지속, 수출 둔화세 확대, 소비둔화 등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 모두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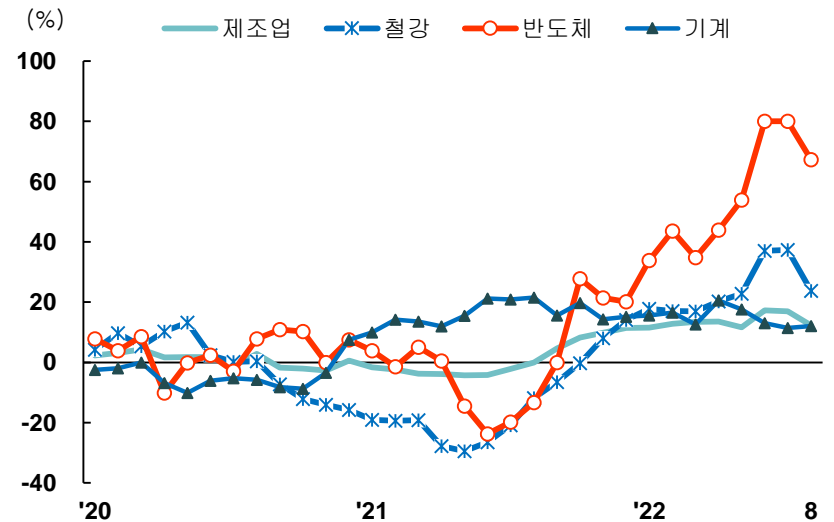
- (제조업) 반도체, 철강, 기계 등의 분야에서 수출둔화, 재고증가, BSI 전망치 하락 등으로 향후 생산둔화 예상, 다만 방산, 조선 생산은 수출계약, 수주잔량 확보로 증가세 지속 전망
 ※ 제조업 BSI 전망치 : 92('21.Q1) → 103(Q2) → 101(Q3) → 100(Q4) → 95('22.Q1) → 101(Q2) → 95(Q3) → 73(11월)
- (서비스업) 주택가격 하락, 소비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업 생산 둔화, 다만 출입국 규제 완화 등으로 여가서비스 생산 증가
 ※ 서비스업 BSI 전망치 : 68('21.Q1) → 81(Q2) → 80(Q3) → 84(Q4) → 82('22.Q1) → 86(Q2) → 83(Q3) → 80(11월)

국내 산업별 생산지수 증가율

(%)	'20년	'21년	'22년		
			Q1	Q2	8월
全산업	△0.4	6.4	4.4	4.6	3.9
제조업	△0.2	6.5	4.7	4.3	0.8
반도체	22.6	29.4	29.2	27.3	△1.7
자동차	△9.5	4.5	△4.4	5.0	22.3
조선	8.6	△16.9	△1.9	12.3	12.7
기계	3.1	11.9	△2.9	△5.4	7.6
화학	△3.2	7.6	0.8	△4.2	△13.1
철강	△6.3	5.8	2.1	△1.7	△7.5
의료정밀	4.7	17.0	17.0	3.6	4.8
ICT	11.3	20.2	14.0	16.4	△7.2
서비스업	△2.0	4.4	4.1	5.5	7.1

주 : 전동비, 자료 : 통계청

국내 주요 업종의 재고지수 증가율



주 : 전동비, 자료 : 통계청

3. 산업환경 [이슈] : ① 경제블럭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

신냉전체제로 인한 경제블럭화 전개와 글로벌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공급망 재편 지속

- 미국과 서구중심의 경제블럭 IPEF^{인도태평양경제포럼} 출범,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고화로 대립 구도 강화
 -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칩4 동맹 결성 등을 통한 미 주도 반도체 및 배터리 생태계 구축, 주도권 확보 노력
- ※ IRA : 10년간 7,900억달러 재정을 확보하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자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법안('22.8월)
 ※ 반도체 지원법 :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520억 달러 보조금 지원, 시설투자액의 25% 세액공제 등을 통한 對中 견제

공급망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급망 불안으로 생산차질, 채산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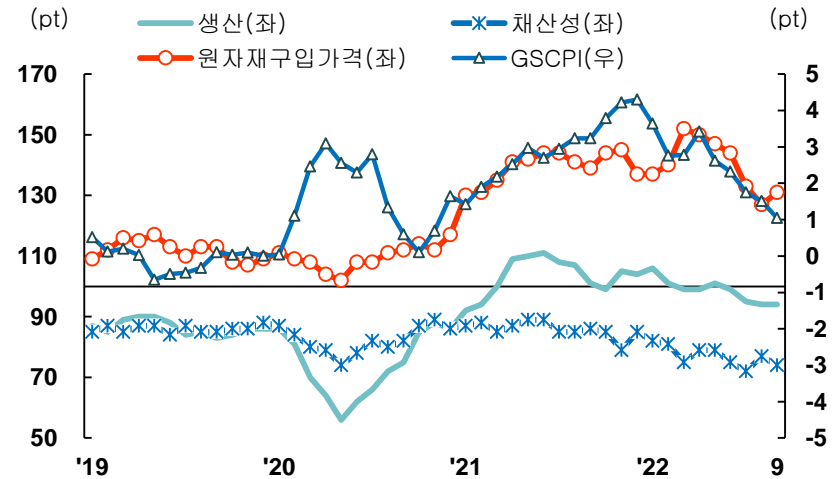
- IRA발효로 미국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 중이나 대체 공급망 확보 등의 대응 지연에 따른 생산차질 가능성 존재
- 대체 공급망 확보, 대체재 개발, 물류비용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 제조업의 채산성 악화 불가피

주요국 반도체산업 정책 비교

국가	목표	주요 내용
미국	자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	• 국내외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
중국	반도체 자립	• 국영 기업을 통한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대만	반도체 제조 경쟁우위 유지	• 인력 양성, 규제 개혁, 과학단지 확장을 통한 국내산업 활성화
일본	반도체산업 부활	• TSMC, 마이크론 등 외국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EU	반도체 제조 역량 회복(확보)	• 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역외 기업 유치, '30년 역내생산 20% 달성
한국	종합반도체 강국	• 메모리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도 세계 최고 역량 확보

자료 : 산업연구원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와 국내제조업 BSI(실적)



주 : BSI 실적치 100 이상은 좋음, 이하는 나쁨, GSCPI(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는 평균값 0 기준보다 높으면 공급망 압력 증가, 낮아지면 공급망 압력 감소
 자료 : 통계청, New York FED

3. 산업환경 [이슈] : ② 기후변화 대응전략 재조정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주의 사이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경

- 러-우전쟁 계기로 탄소중립 실행계획에 대한 회의론 대두, 탈원전, 탈석탄, 천연가스 확대에서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로 전환
 - ※ 러시아産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REPowerEU 정책결정으로 독일은 전체 전력의 80%를 '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프.영은 원전증설 예정
 - ※ 다만, 러시아 천연가스 중단 등으로 일시적 석탄사용 확대, EU 전력원별 발전량(전동비, '22.5월, %): 석탄발전 24, 가스발전 14, 원전 △20, 풍력 △15
- 국내 원전 비중과 해외 원전 수주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선폐기물 최소화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 ※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으로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인 및 정부 지원 확대 예상

대응전략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기조 지속으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23년 EU가 철강, 석유화학 등 9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 부과 예정인 가운데, 국내기업의 RE100 가입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동시 비용부담 가중 예상
 -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년 전체 발전량의 7.5%, OECD 평균(30%)의 1/4 수준으로 낮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에도 애로 발생 우려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

국가	주요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 건설('21년 6.8GW→'50년 24GW) 총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현재 15%→25%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 2기 '35년까지 연장 운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 상업원전 지원 확대 SMR 등 차세대 원전 집중 개발, 우방국과의 원전동맹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추가 8기 검토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년까지 6기 건설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년까지 최대 4기 추가 건설(원전비중 36% → 46~58%)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1기 가동 개시, 기존 2기 연장운영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비교

국가	탄소중립 목표*	주요 법제화 /정책	주요 내용
영국	'30년 68% ↓	탄소중립법 탈탄소화 행동계획	'25년 탈석탄, 원전유지, 탄소포집·저장 보급, '30년 내연기관 종료
EU	'30년 55% ↓	유럽기후법 탄소국경세	'25년 탄소국경세 '38년 탈석탄, 태양광/풍력/수소 재생에너지 확대, '32년 내연기관 종료
미국	'30년 65% ↓	추진예정	'35년 탈석탄, 원전 유지(차세대 원전 개발 보급)
일본	'30년 46% ↓	탈탄소화 전략	해상풍력 10GW 증설, 그린수소 등 대안 모색
한국	'30년 40% ↓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확대 석탄발전 비중 감축

* 탄소중립 목표는 영국, EU, 미국은 1990년 배출량 대비, 일본은 '13년 대비, 한국은 '18년 대비

자료 : IBK경제연구소 정리

II.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경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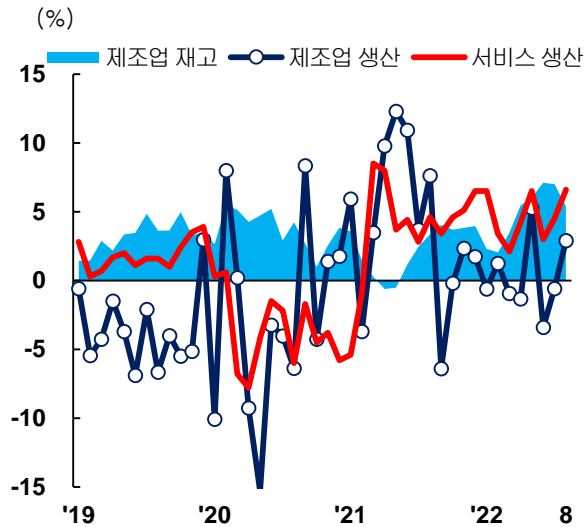
(현황)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시현 중이나 제조업은 재고·비용 부담증가로 연중 부진 지속

- (제조업)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감소세를 시현
 ※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10~300인 미만 사업장, 천원, 통계청) : 3,822('22.1) → 3,302(2) → 3,426(3) → 3,295(4) → 3,291(5) → 3,370(6) → 3,485(7)
- (서비스업) 코로나19 진정세 및 방역조치 완화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어, 제조업과의 회복격차가 확대되는 양상
 ※ 중기서비스-제조 생산지수 격차(pt, 통계청) : 2.2('21.1) ⇒ 6.1(6) ⇒ 9.2('22.1) ⇒ 13.1(6) ⇒ 11.4(7) ⇒ 13.5(8)

(전망) 내수·수출 동반위축에 따라 제조업 부진은 더욱 심화, 서비스업의 회복도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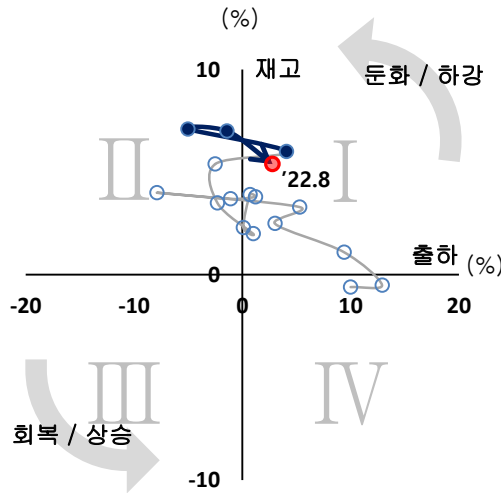
- (제조업) 수출 및 내수판매 전망BSI가 모두 하락 전환하고 출하부진 및 재고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부진 심화
- (서비스업) 대면업종 중심으로 회복을 이어 나가겠으나, 가계 소비여력 감소에 따라 회복세는 제한될 전망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한국은행) : 104.4('22.1) ⇒ 103.2(3) ⇒ 102.6(5) ⇒ 86.0(7) ⇒ 88.8(8) ⇒ 91.4(9)

생산·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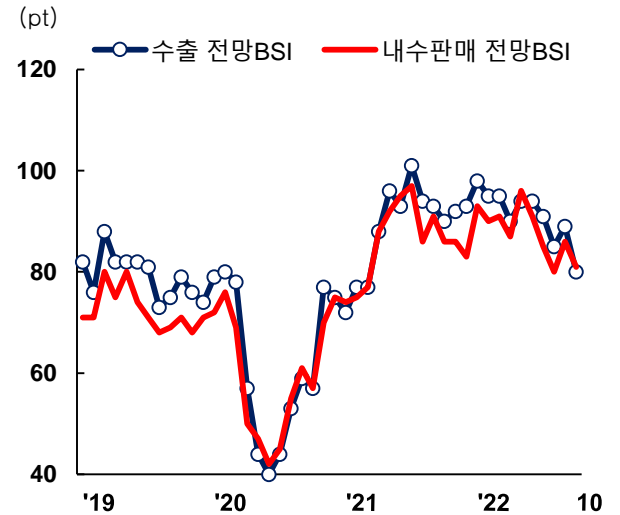
주 : 전동비, 자료 : 통계청

재고·출하순환



주 : 전동비, 자료 : 통계청

수출·내수 전망BSI



주 : 100 초과 경기호전, 100 미만 경기악화
 자료 : 한국은행

1. 중소기업 경기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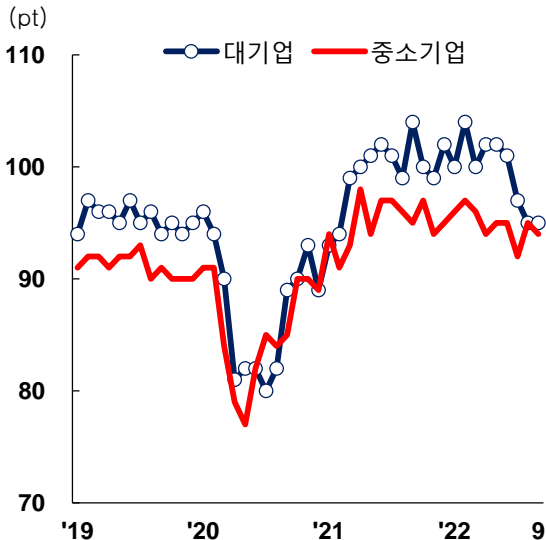
(현황) 채산성 악화 우려와 재고 및 유희설비 부담이 부각되며 설비투자는 둔화

- 설비투자지수는 경기둔화, 3高에 따른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 가능성이 투자수요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진
 - ※ 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적BSI(기준=100, 한국은행) : 96('22.1) → 97(2) → 96(3) → 94(4) → 95(5) → 95(6) → 92(7) → 95(8) → 94(9)
- 현재 대·중소기업 재고가 동반증가하고 평균가동률도 하락세를 보여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는 매우 제한적
 - ※ 제조업 평균가동률(% , 통계청) : 78.6('22.1) → 77.0(2) → 78.0(3) → 76.7(4) → 75.6(5) → 76.4(6) → 75.2(7) → 75.2(8)

(전망) 고금리 지속,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설비투자 위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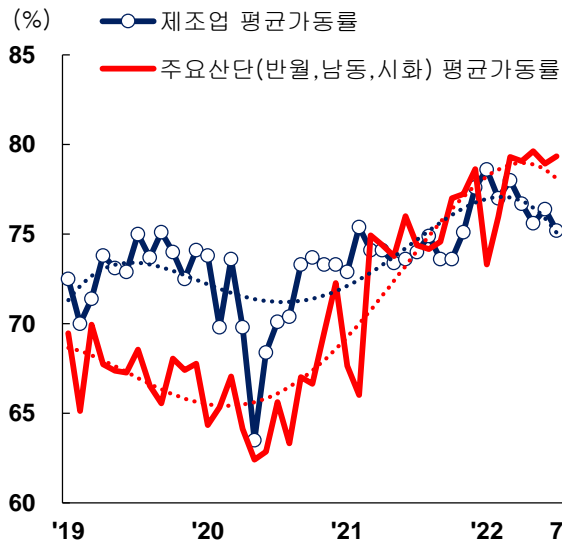
- 선행지표(자본재수입액, 기계수주액 등)가 둔화세를 보이고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반적 투자심리는 부진 전망
-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부담 및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이익감소로 당분간 설비투자 관망·축소세 지속
 - ※ 중소기업 매출전망 BSI(기준=100, 한국은행) : 96('22.1) → 93(2) → 95(3) → 90(4) → 97(5) → 91(6) → 87(7) → 82(8)

대·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적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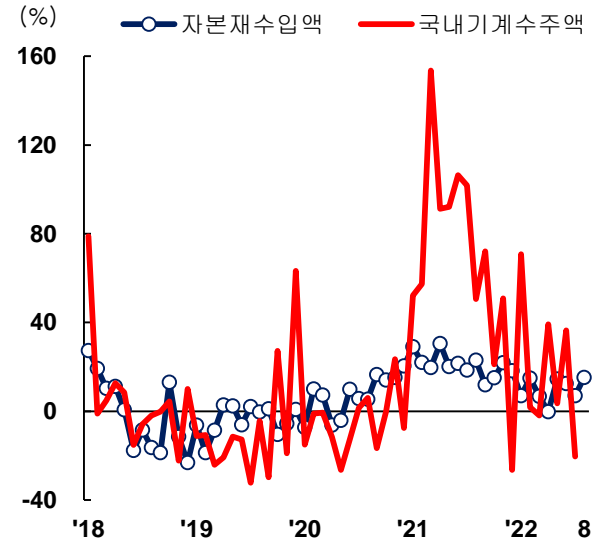
주 : 100 초과 경기호전, 100 미만 경기악화
 자료 : 한국은행

제조업 및 주요산단 평균가동률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

자본재수입액 및 국내기계수주액



주 : 국내전체(대기업 포함), 전동비
 자료 :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1. 중소기업 경기 [자금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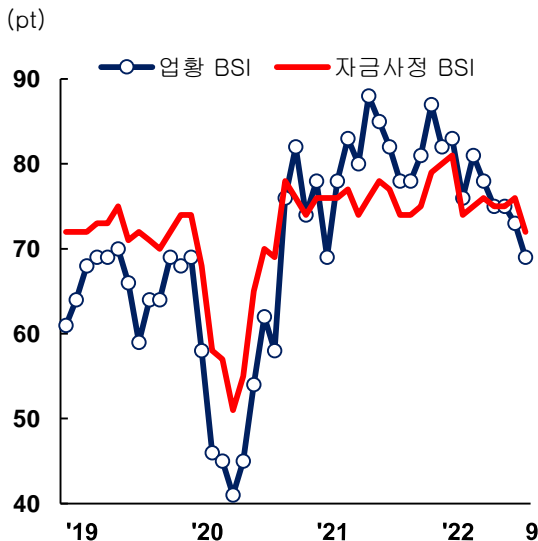
(현황) 부진한 경기상황 지속과 비용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소폭 악화

-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는 연초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22.9월 현재 연초대비 8pt 하락한 72pt를 기록
 - ※ 중소기업 자금사정 실적BSI(기준=100, 한국은행) : 80('22.1) → 81(2) → 74(3) → 75(4) → 76(5) → 75(6) → 75(7) → 76(8) → 72(9)
- 팬데믹 직후 대출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급격한 물가 및 금리상승이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자금여력을 악화
 - ※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한국은행) : 673('19.1) → 722('20.1) → 811('21.1) → 895('22.1) → 909(3) ⇒ 926(5) ⇒ 938(7)

(전망) 기업 내·외부적으로 자금조달여건이 어려워지며 전반적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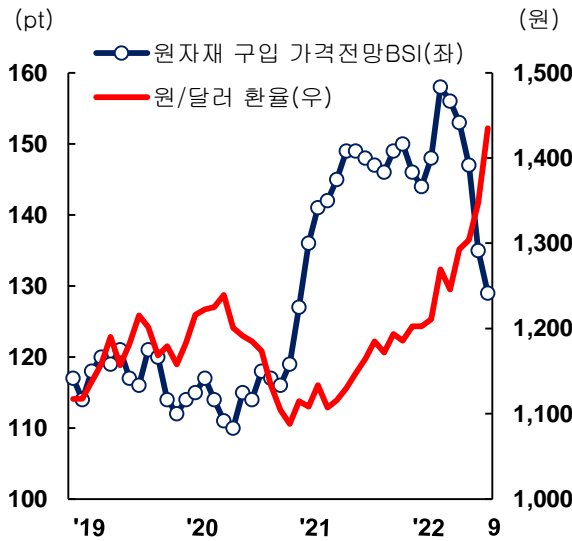
- 비용 증가속도는 정체된 매출을 상회하여 기업이 잉여 현금흐름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지속 악화
- 정책자금 정상화(위기이전 수준), 은행의 보수적 대출태도 등 외부 차입여건 또한 자금사정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
 - ※ 코로나19 대출 이자상환 유예종료('23년 중)에 따라, 금융권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자금공급 태도를 취할 예정

제조업 업황 및 자금사정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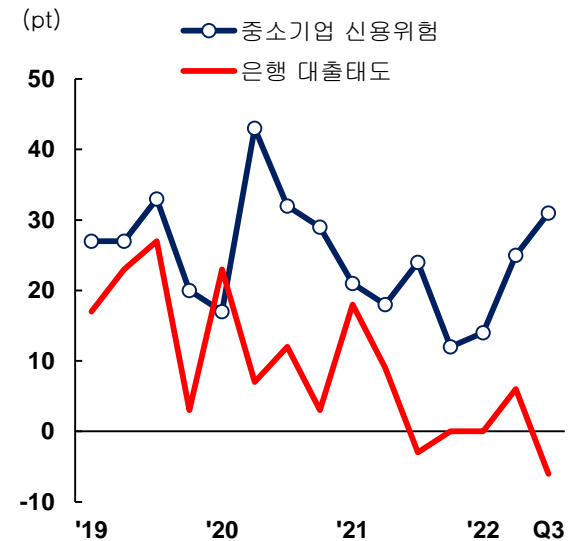
주 : 100 초과 경기호전, 100 미만 경기악화
자료 : 한국은행

원자재 구입 가격전망 및 환율



주 : 100 초과 경기호전, 월말기준 원/달러 환율
자료 : 한국은행

중기 신용위험 및 은행 대출태도



주 : 대출태도는 '강화<0<완화', 자료 : 한국은행

1. 중소기업 경기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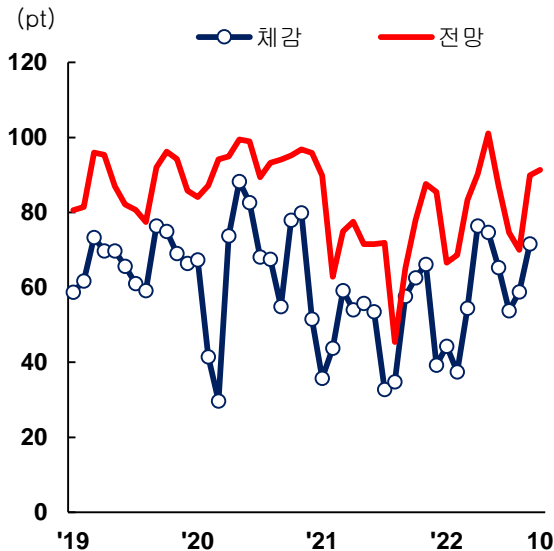
(현황)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일부 취약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폐업 증가

-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19 진정세 및 방역조치 완화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
 ※ 소상공인 경기전반 체감BSI(100 이상 = 경기 호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76.4('19.9) ⇒ 54.9('20.9) ⇒ 57.6('21.9) ⇒ 71.6('22.9)
-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나 영세 취약군을 중심으로 경영악화 징후*가 관측
 *폐업한 IBK 차주 중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을 받은 차주 비중(% IBK) : 15.3('20.4) → 29.4(5) → 31.8(6) ⇒ 48.9(21.4) → 51.1(5) → 49.7(6) ⇒ 57.0(22.4) → 61.1(5) → 67.2(6)

(전망)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상황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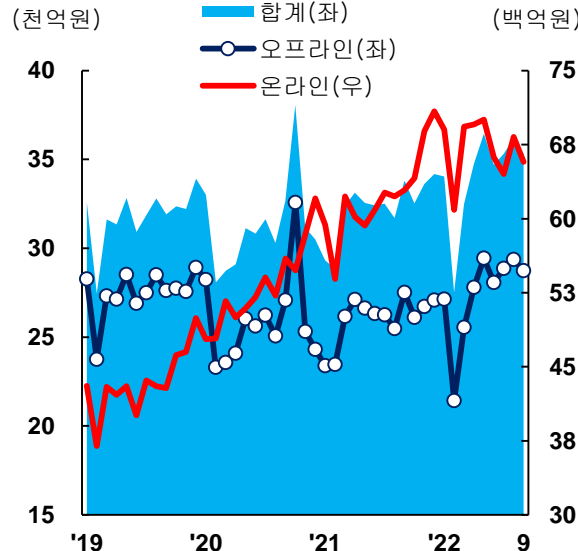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환경은 정상화되었지만 원자재값, 인건비, 전기·가스요금 등 생산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우려
 ※ 소상공인 비용상황 체감 BSI(100 이상 = 비용증가) : 95.0('22.1) ⇒ 104.2(3) ⇒ 112.6(5) ⇒ 113.5(7) ⇒ 112.6(9)
-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 심화
 ※ 소비지출전망CSI(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한국은행) : 111('22.1) ⇒ 114(3) ⇒ 116(5) ⇒ 112(7) ⇒ 109(9)

소상공인 경기전반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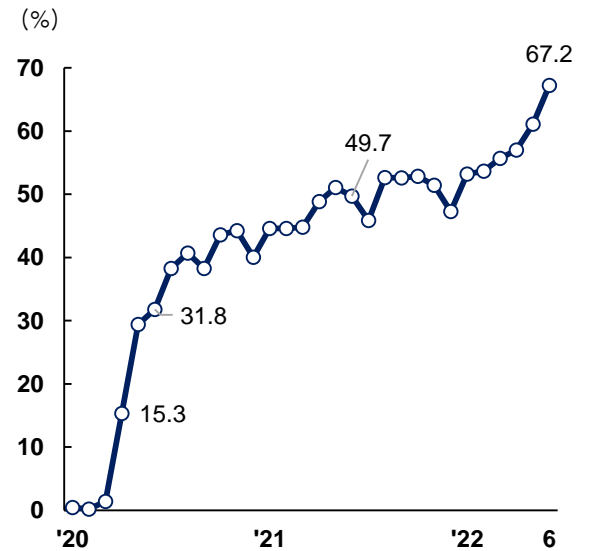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IBK 전체 카드이용대금



자료 : IBK

IBK 폐업차주 중 소상공인대출 차주 비중



주 : 폐업차주는 '22.8월말 기준으로 추출
 자료 : IBK

[참고] '23년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건전재정 기초 하에 민간역량 활용 극대화, 전년대비 28.0% 감소한 13.6조원 편성

※ 총지출 기준 '22년 본예산 18.8조원, '23년 예산안 13.6조원으로 전년대비 5.2조원(28.0%) 감소

- (축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한시 지원 종료, 모태펀드 출자 및 스마트공장 예산 축소 등
- (확대) 민간주도 투자 생태계 지원, 수출 지원, 공정거래 정착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자생력 강화 확대

(금융위)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3.7조원의 예산 편성

- (서민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안심전환 대출」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
- (혁신성장 지원) 기존 뉴딜펀드를 재편한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혁신산업 육성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

※ 금융위원회 예산 편성(국회제출안 기준, 조원) : 3.1('19) → 2.9('20) → 4.3('21) → 3.5('22) → 3.7('23)

'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3대 방향	중점 과제	예산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 시장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신산업 규제 개선과 재도전 환경 조성 	1.9
중소기업 확대 (스케일업)와 혁신성장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수출지원 •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 • 중소기업하기 좋은 공정거래 환경 정착 	7.4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공급 및 재도전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 	4.2

단위 : 조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3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주요 지원 내용)

주요 방향	중점 과제	예산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2,800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안심전환 대출) - 변동금리 부담대 →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전환	1,300
혁신성장 지원	① 혁신성장펀드 -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	3,000
	② 핀테크 지원 사업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	140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위원회

[요약] '23년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2023년 경제 및 산업환경

“예측이 어려운 복합위기”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중국 부동산 등의 경기 하방 압력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 영향 가시화, 정책 실패 리스크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 확대

(국내경제) 주요국의 경기 침체 본격화, 지정학적 위험, 3高 부담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

(산업환경) 3高 현상 지속, 수출 둔화세 확대, 소비 위축 등으로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모두 둔화

2023년 중소기업 경기

“저성장·고금리의 복합위기”

(생산/수출) 수출·내수 동반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3高에 따른 불안요인 지속으로 투자 위축

(자금사정) 고금리, 은행의 보수적 대출태도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 예상

[부록]

2022년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요약)

추진배경

- 효율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국가승인통계(국가승인통계 제303003호)의 개발 및 조사 수행

추진경과

- '14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10회 실시('16년 이후 연 1회 실시 중)

조사내용

- 조사대상 : 전국 매출액 5억 초과 4,500개(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3억 초과)
 - 조사항목 :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자금전망, 자금조달 현황, 금융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등
 - 조사기간 : 통상 매년 5 ~ 8월 설문조사실시, 9 ~ 10월중 책자발간(1,500부) ※ 대상기간 : '21.1~12월
- ※ 본 부록의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영상황과 자금수요
2. 신규 자금조달 현황
3. 자금운용 실태
4. 판매대금 자금결제 현황
5. 주거래은행 이용실태
6. 기술금융 및 기타 건의사항

1. 경영상황 및 자금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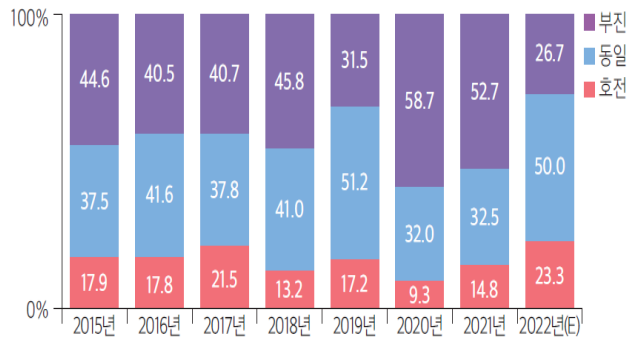
(경영상황) 부진한 경영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늘며 회복세를 기대

- '21년 중소기업 과반수 이상(52.7%)이 '부진'하다고 응답했으나, '22년은 26.7%로 전년대비 32.0%p 크게 개선
 ※ 연도별 경영상황 전망('22, %) : 호전(32.3), 동일(50.0), 부진(26.7)

(자금수요 전망) 코로나 영향으로 '2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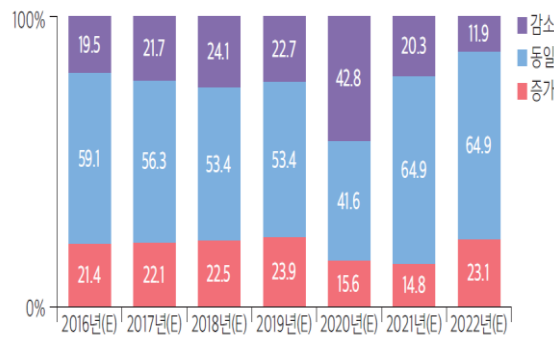
- '22년 중소기업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1%로 전년대비 8.3%p 증가
 ※ 자금수요 변화 전망('22, %) : 증가(23.1), 동일(64.9), 감소(11.9)
- (자금수요 증가이유) 원재료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증가로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분석
 ※ 자금수요 증가 예상 이유('22, %) : 구매대금지급(80.4), 인건비지급(51.3), 원리금상환(20.6), 임차료지급(10.0), 설비투자(9.0), R&D투자(2.1)

경영상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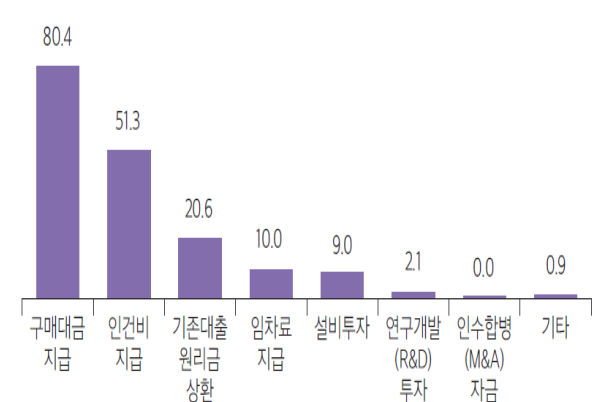
주 : 전체기업, '22년 전망치(e), %

자금수요 변화추이 전망



주 : 전체기업, 전망치(e), %

자금수요 증가 예상 이유



주 : 자금수요 증가 기업('21), 복수응답, %

2. 신규 자금조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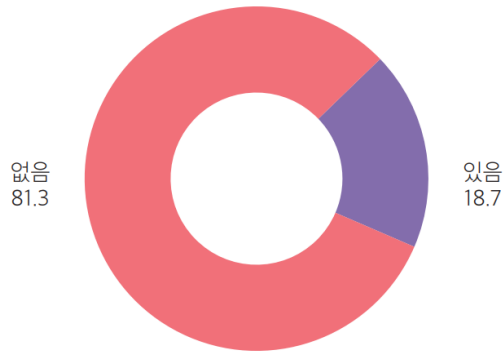
(자금조달) 외부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신규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은 18.7%로 전년대비 1.2%p 소폭 감소
- (자금원천) 은행,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順으로 동일하나, 은행조달 비중이 58.4%로 전년대비 8.8%p 증가

(충족비중) 신규 조달자금이 필요자금 대비 충족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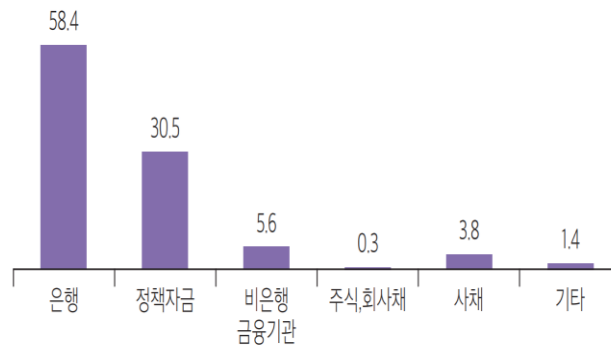
- '21년 평균 80.9%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 76.1%에 비해 4.8%p 소폭 증가
※ 100% 모두 충족되었다는 기업은 47.3%로 나타남
- (기업규모) 중기업이 소기업보다 신규 조달자금 충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 신규 자금조달 필요자금 충족 비중('21, %) : 중기업(84.0), 소기업(80.6)

신규 자금조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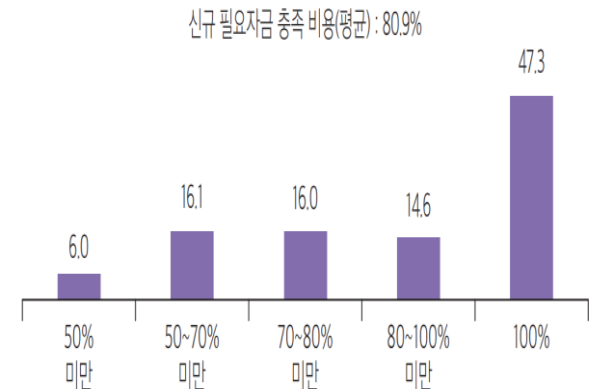
주 : 전체기업('21), %

신규 자금조달 원천별 비중



주 : 신규 자금조달 보유기업('21), %

신규 조달/필요자금 충족 비중



주 : 신규 자금조달 보유기업('21), %

2. 신규 자금조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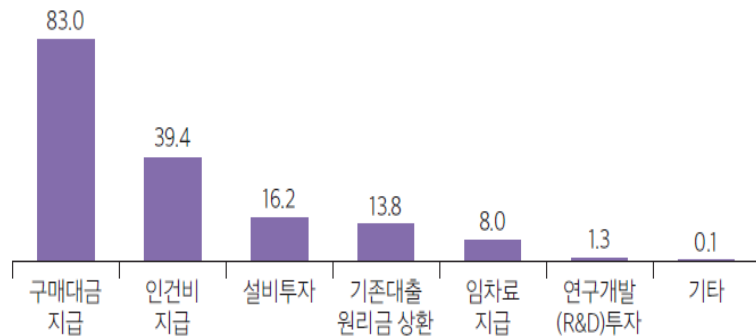
(은행자금) 신규대출 자금 사용처는 구매대금, 인건비, 원리금 상환 순으로 조사

- 은행 조달자금의 사용처 중 '구매대금 지급'이 83.0%로 전년도에 비해 20.0%p 크게 증가
 ※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료·원자재값 상승 등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

(정책자금)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중진공 대출, 소진공 대출 순이며 소상공인 지원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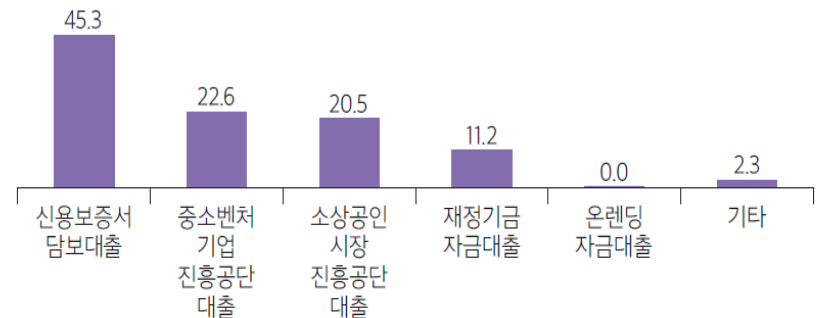
-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종류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 45.3%로 가장 많았음
 ※ 정책자금 대출 종류('21, %) : 신용보증서(45.3), 중진공(22.6), 소진공(20.5), 재정기금(11.2), 기타(2.3)
-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비중은 20.5%로 전년대비 14.6%p 크게 증가*
 * 집합금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은행 신규대출 자금 사용처



주 : 은행 신규대출 신청기업('21), 복수응답, %

정책자금 대출 종류



주 : 정책자금 받은 기업('21), 복수응답, %

3. 자금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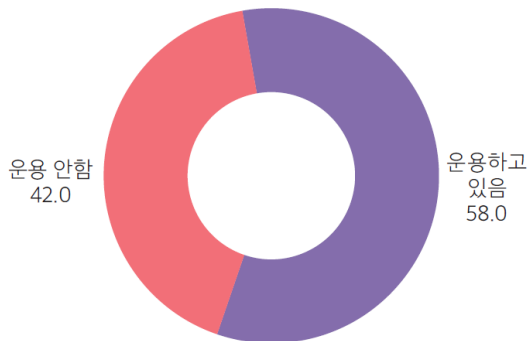
(자금운용)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

- '21년 말,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58.0%로 전년대비 23.6%p 증가
- (기업규모) 중기업이 소기업 대비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높음
 ※ 기업규모별 금융자산 운용 비율('21, %) : 중기업(66.9), 소기업(56.8)

(운용 시 고려사항) 주요 상품은 '수시입출금 예금'이며, 주로 '입출금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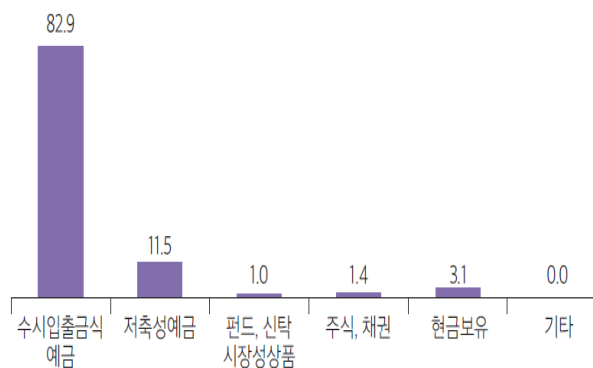
- (운용상품) 금융자산 운용 비중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82.9%로 대부분을 차지함
 ※ 금융자산 운용 비중('21, %) : 수시입출금(82.9), 저축성예금(11.5), 펀드,신탁,시장성상품(1.0), 주식,채권(1.4), 현금보유(3.1) 등
- 입출금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대내외여건에 따라 안전한 금융상품 선호도가 증가
 * 금융자산 운용시 중요 고려사항 : 안전성 36.3%('20) → 47.6%('21)

금융자산 운용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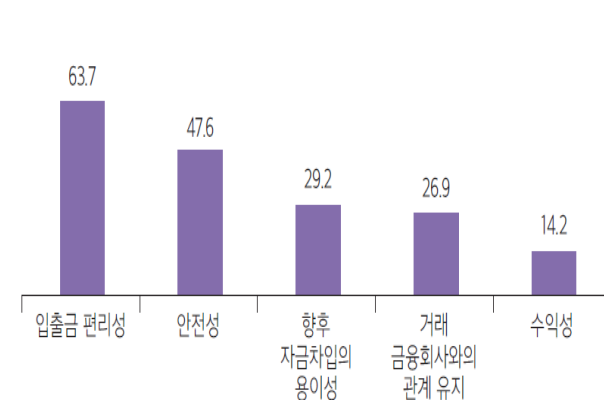
주 : 전체기업('21), %

금융자산 운용 비중



주 : 금융자산 운용기업('21), %

금융자산 운용 시 고려사항



주 : 금융자산 운용기업('21), 복수응답, %

4. 판매대금 자금결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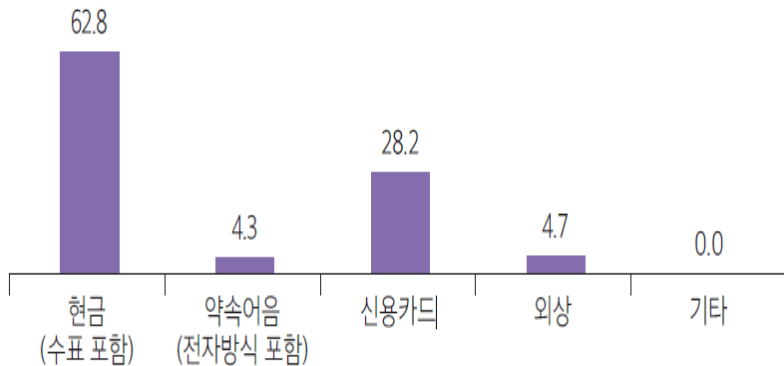
(판매대금) 판매대금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외상, 약속어음 순으로 조사

- 중소기업이 받은 결제수단으로 '현금(수표 포함)'이 62.8%로 가장 높음
※ 서비스업은 '신용카드(39.7%)', 제조업은 '약속어음(11.3%)'과 '외상(8.9%)'도 상대적으로 높음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간은 대략 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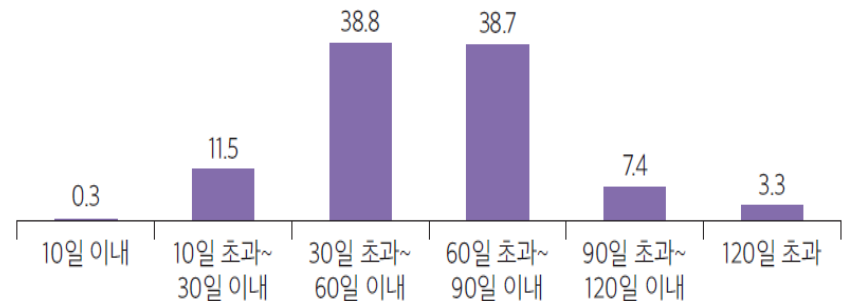
-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간은 30일 초과~60일 이내(38.8%), 60일 초과~90일 이내(38.7%)가 많은 것으로 조사
※(기업규모) 소기업은 30일 초과~60일 이내(40.1%), 중기업은 60일 초과~90일 이내(48.4%)가 가장 높음

판매대금 결제수단



주 : 판매대금 받은 기업('21), %

받은 약속어음 지급기간



주 : 판매대금 받은 기업('21), %

5. 주거래은행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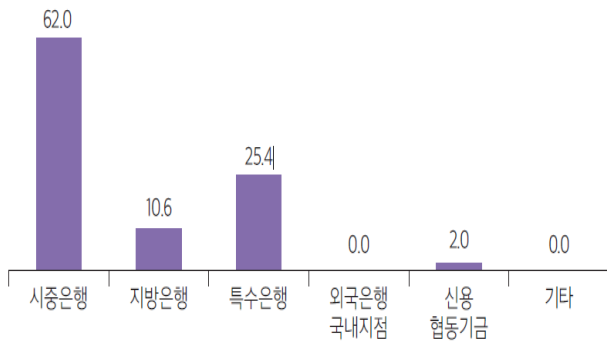
(주거래은행) 시중은행, 특수은행順이며 전년도에 비해 특수은행 비중이 증가

-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은 시중은행(62.0%)이 가장 많았으며, 특수은행(25.4%)도 전년대비 8.5%p 증가
 ※ 주거래은행 유형('21, %) : 시중은행(62.0), 특수은행(25.4), 지방은행(10.6), 신용협동기금(2.0) 등

(고려사항) 점포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대출 시 불편사항은 높은 금리수준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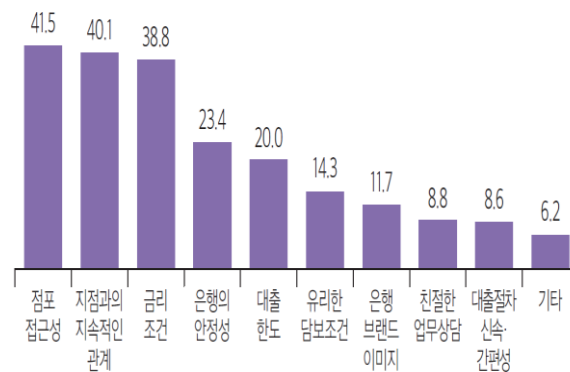
- 주거래은행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점포 접근성(41.5%)*과 지점과의 지속적인 관계(40.1%)가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 소기업은 '점포 접근성(42.4%)', 중기업은 '금리 조건(42.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불편사항) 높은 금리수준(45.6%), 복잡한 서류·대출절차(24.8%) 응답이 높고, 애로사항 없음(32.5%)順

주거래은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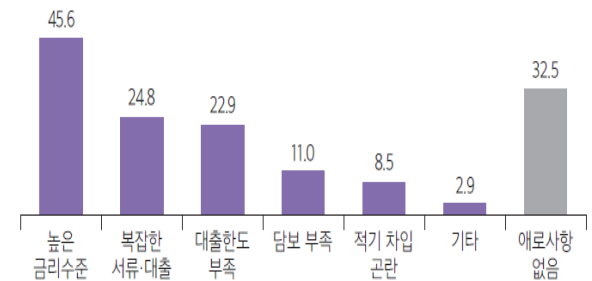
주 : 전체기업('21), %

주거래은행 선택 시 고려사항



주 : 전체기업('21), 복수응답, %

은행 대출 시 불편사항



주 : 전체기업('21),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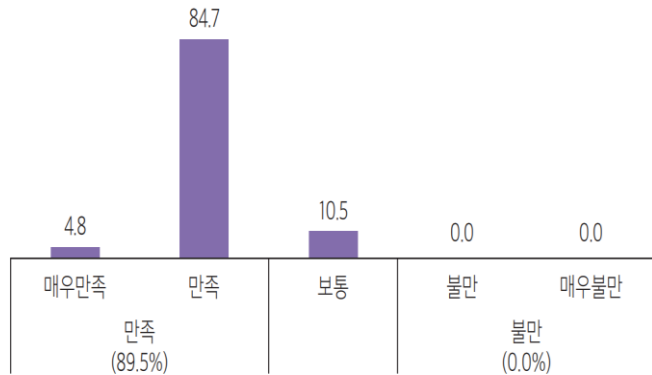
6. 기술금융 및 기타 건의사항

(기술금융)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개선사항으로는 대출한도 확대 등을 원함

- 기술금융을 받은 기업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 정도를 보이며, '만족*(매우 만족 4.8%, 만족 84.7%) 비율은 89.5%로 나타남
* (업종) 제조업의 '만족' 비율이 89.0%로 서비스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개선사항) '한도 확대', '금리조건 개선*', '관련 정책금융 확대', '대출심사 소요기간 단축' 등의 순임
* 기술금융 분야에서는 저금리 영향, 우대금리 등으로 '금리조건 개선' 응답이 전년대비 30.5%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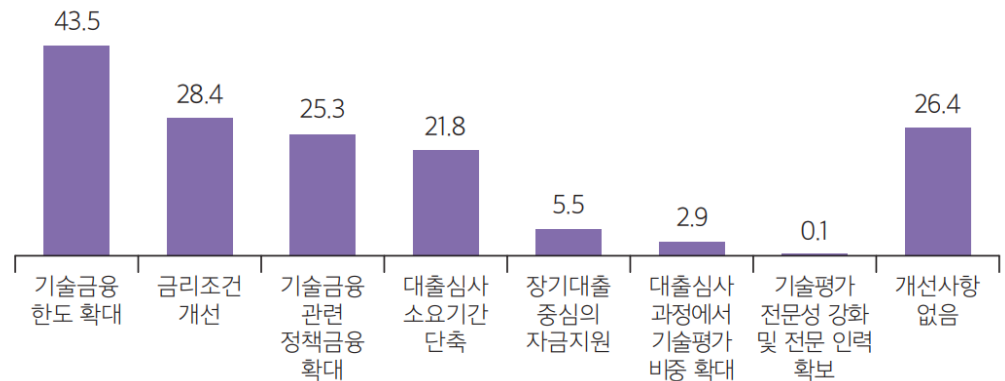
※ (기타 건의사항)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금리 인하를 원하는 중소기업 많아지고 있으며 한도 확대, 대출조건 완화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관련 수출기업 지원, 환율 관련 지원책도 확대되길 희망

기술금융 만족도



주 : 기술금융 이용기업('21), 복수응답, %

기술금융 개선사항



주 : 기술금융 이용기업('21), 복수응답, %

